몽골제국 시기 몽골인들의 작명 풍습에 대한 관견

에르덴바테르 (내몽고대학 몽고역사학과)
[원문 중국어, 번역: 박현(북경대학 일문과)]

몽골제국 시기 몽골인들은 자기 자손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복한 지역의 지명이나 부족명을 갖다 쓰는 풍습이 있었다. 《몽골비사(蒙古秘史)》, 《원사(元史)》, 《사집(史集)》[1]과 같은 역사 문헌에 보면 몽골제국 시기 이러한 현상이 아주 보편적이었음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리답[撒里答,사르탁](회회), 쇄랑합[鎖郎哈,솔랑카](고려), 당올대[唐兀歹,탕굴타이](서하인), 합신[合申,하신](하서), 흔도[忻都,힌두](인도), 낭가태[囊加台,낭가타이](남송), 만자태[蠻子台,만지타이](남송), 아속태[阿速台,아수타이](아스), 흠찰[欽察](킵차크), 알라사[斡羅思,오로스](러시아), 마찰아[馬札兒,마자르](헝가리), 아로혼[阿魯渾](아르군), 출적태[朮赤台,주르치데이](여진) 등이다. 졸고에서는 해당 현상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며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연구자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살리답(撒里答, sartaq[사르탁])

"살리답(撒里答)"은 단어 "Sartaq(사르탁)"에 대한 한자 음역으로서 "살아탑올륵(撒兒塔兀勒)"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는 몽골이 호라즘(花剌子模), 부하라(不花剌), 사마르칸트(撒馬耳干) 등지의 회회(回回) 상인들에 대한 호칭으로서 이러한 지역들을 통틀어 지칭하기도 하였다. 살리답은 산스크리트어 "Sartnavaho"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상인"을 뜻하는데 처음에는 돌궐인들이 이란어를 사용하는 정착 상인들에 대한 호칭이었으며 수당 시기의 중국에서는 "살보(薩寶)"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 후에 돌궐어 발음 "Sartaq"에서 파생되어 몽골어 복수 형태인 "Sartaul [撒兒塔兀勒]"과 형용사 형태인 "Sartaqtai [撒兒塔黑台]"로 변형하게 된다[2]. 《원조비사》에는"撒兒塔兀勒"(Sartaul), "撒兒塔黑臣"(Sartaqčin) 등과 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옆에 "회회"라고 역주를 달고 있다. 《비사》 제 254 절에는 "帖兀訥 豁亦納 成吉思合罕 撒兒塔兀勒 亦兒格捏 兀忽納 帖里兀田 札溫 額勒赤你顏 者惕古周"라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중 "撒兒塔兀勒 亦兒格捏" 옆에는 "회회 백성"이라는 역주가 붙어있다. 여기서 회회는 호라즘인을 가리키며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서역인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1219-1225 년간 칭기스 칸은 중앙아시아 호라즘에 대한 대규모 전쟁을 발동하였는데 몽골어에서는 이를 "Sartaqčin ayan"이라고 부른다[3].

살리답(사르탁)은 흔히 볼 수 있는 몽골 이름이다. 특히 호라즘을 정복한 주치(术赤) 일가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발견된다. 바투(拔

---

[1] 역자 주 : 한국에서는《집사(集史)》라고 한다.

[2] [소련] 바르톨드 저, 羅致平 역, <中亞突厥史十二講>,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p132-133;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上海辭書出版社, 1986, p518, 周清澍이 작성한 "撒里答" 조항.

[3] 亦隣眞, <至正二十二年蒙古文追封西寧王忻都碑>, <亦隣眞蒙古學文集>,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693.

都)의 아들 이름 역시 살리답이었다 [1]. 구육 칸(貴由汗)이 죽은 뒤 살리답은 부친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헌종(憲宗) 뭉케(蒙哥)를 대칸으로 옹립하였다. 그는 후일 킵차크 칸국의 서쪽 변경을 지켰으며 겸하여 러시아의 여러 소국들을 통치하였다. 프랑스 프란체스코회의 윌리엄 뤼브룩(William of Rubruk) 수사는 동쪽으로 몽골 통치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번 바투의 아들 살리답을 만났다 [2].

주치 칸의 첫째 아들 오르다(斡兒答)의 장자의 이름 역시 "살아탑흑태"였다 [3]. 오고타이 칸 시기, 제 1 차 여몽전쟁에서 몽골군 통수의 이름도 살례탑(撒禮塔[살리타이])이었다. 1231 년, 살례탑은 대칸의 명에 좇아 고려를 정벌하였는데 성들이 연달아 함락되자 고려 왕은 사신을 보내어 화해를 구하였다. 그러자 살례탑은 고려 경내의 왕경, 부, 현 등 각지에 다루가치 72 인을 배치하였다 [4]. 이듬해 7 월, 고려 왕은 강화도로 피신하였고 고려인들은 몽골이 설치한 다루가치들을 전부 죽였다. 8 월에 살례탑은 재차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진공하였으며 5 년에 실리답은 다시 명을 받들어 고려로 원정해서 왕경(현재 북한의 개성)을 넘어 남으로 처인성(處仁城)을 공격하는 중에 고려군에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5].

쿠빌라이 칸의 수하에는 살아탑흑태나안(撒兒塔黑台那顏)이라는 한 대신이 있었다 [6]. 라시드에 의하면 "아난다(阿難達, Ananda)의 신하 중에 살리탑(撒里塔, Sartaq)이란 사람이 이슬람교를 반대하였는데, 칸에 입조하여 아난다가 항상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잔치를 베풀며 <코란>을 읽는다고 원망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살리답"이란 이름의 여러 변형들은 모두 "사르탁(Sartaq)"이란 지명과 민족명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2. 숙량합(肅良合, Solangqa[솔랑카])

숙량합(肅良合)은 몽골인들이 고려에 대한 호칭이다. 몽골인들이 고려를 숙량합(솔랑카)으로 부른 최초의 기록은 한자로 음역한 "사랑합사[莎郎合思]"(Solanqas, 원 단어의 복수 형태)로서 <원조비사(元朝秘史)> 제 274 절에 등장하며, 옆에 "고려"라고 역주가 더해져 있다 [7]. 원나라 말기, 고려인 기(奇) 씨(몽골명: 올제이 후투그[完者忽都])는 원순제 토곤 테무르(妥歡貼睦爾)의 황후가 되었으며 후지원(後至元) 6 년(1340)에는 원순제의 황자 아유르시리다라(愛猷識理達臘)를 낳았다. 이리하여 몽골 황실에도 고려인의 혈통이 섞이게 되었다. "어미는 아들로 인하여 높임 받는다"고 기 씨는 바로 제 2 황후로 추대되었다. 지정(至正) 13 년(1353), 아유르시리다라가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며 25 년(1365)에는 기 씨가 황후로 책봉 받아 섭태위(攝太尉)로

---

[1]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 2 권, 1985, p127; 周良宵 역주, 波義耳 영문역, <成吉思汗的繼承者>(<史集> 제 2 권), 天津高籍出版社, 1992, p139.

[2] 耿昇 何高濟 번역, <柏朗嘉賓蒙古行紀 魯布魯克東行紀>, 中華書局, 1985, p313-317.

[3]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 2 권, p116.

[4] <원사> 권 208, 고려전, p4608.

[5] 정인지, <고려사> 권 23, 고종세가 2.

[6]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 2 권, p318.

[7]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p337, 周清澍이 작성한 "肅良合" 조항.

부터 옥책과 옥보를 수여받았다. 책문 중에 이르기를 “숙량합 씨는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짐을 섬기러 왔노라(咨爾肅良合氏, 篤生名族, 來事朕躬)”라고 하였고 기 씨를 황후로 책봉하는 조서 중에는 “기 씨 성을 바꾸어 숙량합 씨로 하노라”라는 대목이 나온다[1]. 원순제는 조서를 내려 “기”라는 한족과 비슷한 성씨를 몽골식 성씨로 바꾸어서 고려인 전체를 지칭하는 족명으로 하였으며 이는 “명문 가족”이라고 인정하면서 “Solanqa”에 대응하는 표준 한역자를 칙령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원사> 중에 출현하는, 황제가 친히 솔랑카를 성씨로 인정한 예로 박새음불화(朴塞音不花)가 있다. 이 인물의 성은 고려 민족 고유의 “박”씨이나 그 이름은 몽골어 “Sain-buga” 즉 “좋은 숫소”라는 뜻으로 또한 한족 선비들을 본받아 자를 “덕중(德中)”으로 하였다. 《열전》에서는 그를 “숙량합태(肅良合台[솔랑카다이])인”라고 하고 있다. 고대 몽골인들은 성씨를 말할 때 부족명 뒤에 성씨 접미사를 붙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접미사 “-dai/dei”를, 여성의 경우는 “-jin”을 붙였다. 박새음불화는 고려인 남성이었기에 그를 “숙량합태, -Solanqadai”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숙위로 들어가 속고아치(速古兒赤) 즉 “내부의 의복 공급을 관리하는” 케식(怯薛)의 집사인데, 그는 아마도 기황후의 추천을 받아 입궐하여 숙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에는 이기고제점(利器庫提點) 직을 하사받았고 또 기황후가 전문적으로 설치한 자정원판관(資政院判官)으로 임명되었다가 군사를 주관하는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관직을 옮겼다. 한때 그는 고려의 합포, 전라등처군민만호(合浦全羅等處軍民萬戶)로 부임하기도 하였다가 다시 대사농(大司農), 영북행성평장(嶺北行省平章) 의 직을 위임받았다. 지정 24 년(1364)에 이르러서는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로 승진하였고 다시금 집현원대학사(集賢院大學士), 선정원사(宣政院使),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로 되었다. 28 년에 명나라 군대가 대도를 진공할 때, 그는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숭순문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어 포로가 되자 항복하지 않고 살해되었다[2].

<원사·후비표(后妃表)>에는 태조의 제 4 오르도(斡耳朵, ordo 즉 행궁)에는 쇄랑합(鎖郎哈) 왕비가 한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쇄랑합”은 곧 “숙량합”과 같은 의미로서 고려를 지칭하는 “솔랑카”를 뜻한다. 이 밖에도 막남 5 투하(投下)의 이키레스(亦乞列思) 부 중에서 칭기스 칸의 매제이자 개국공신인 보투[孛禿]의 증손 이름 역시 “쇄랑합”이었는데, 그의 딸이 바로 무종황후 즉 명종의 생모이자 원순제의 조모이다[3].

3. 당올(唐兀, tanγud[탕구트]), 합신(合申, Qašin[하신])

당올(唐兀)은 단어 “탕구트(黨項)”에 대한 몽골어 음역이며 동시에 탕구트인과 그들이 세운 서하국을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한다[4]. 합신(合申)은 “하서(河西)”의 음이 변한 것으로 몽골인들은 당시 서하를 이렇게 불렀다. <원조비사> 제 249 절에는, “(칭기스 칸은) 거기서부터 출정하여 합신(合申) 백성을 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오고타이 칸의 다섯째 아들의 이름은 합실(合

[1] <원사> 권 114 <完者忽都皇后奇氏傳>, 권 46 <順帝本紀>, p971.

[2] <원사> 권 196 <忠義·朴塞音不花傳>, p4435.

[3]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p337, 周清澍이 작성한 “肅良合” 조항.

[4]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p414, 周清澍이 작성한 “唐兀” 조항.

失)이었는데 라시드는 "그는 칭기스 칸이 오늘날 당올척(唐兀惕)이라 부르는 하서(河西) 지역을 정복할 때 태어난 연고로 이름을 합실(合失)이라고 지었다.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였고 자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그의 부친이 살아 계실 때 과음하는 악습 때문에 일찍 죽었다. 그가 죽은 뒤, 합실(즉 하서라는 이 이름)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그 후로 그 지역은 당올척으로 불려졌다."[1] 이 합실의 아들이 바로 카이두(海都)이다.

4. 출적태(朮赤台, Jürcidei[주르치데이])

몽골인들은 여진족을 "Jürcen"이라 불렀다. <원조비사> 제 247 절에서는 몽골어로 "주아차돈(主兒扯敦)"이라고 음차하고 그 옆에 "여진의"라고 역주를 달았다.

칭기스 칸의 개국공신인 우루우트[兀魯兀] 부족의 출적태(朮赤台[주르치데이])는 그 이름이 주아차태(主兒扯台), 출아철단(朮兒徹丹), 출철태(朮徹台)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는 처음에 자무카[札木合]를 따랐다가 후에 부족을 거느리고 테무친에게 귀순하게 된다. 몽골이 케레이트(克烈) 부족과 칼랄진 엘레트[哈闌眞沙陀]에서 싸울 때 우루우트와 망구트[忙兀] 두 부족은 선두부대로 출전하여 활로 옹 칸(王汗)의 아들 일카[亦剌合]를 다치게 하였다. 몽골이 건국된후 출적태는 좌수올로올사천호(左手兀魯兀四千戶)의 수령으로 분봉되었으며 칭기스 칸은 그에게 케레이트 옹 칸의 동생 자아감보[札阿紺孛]의 딸 이바카 베키[亦巴合別乞]를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2].

5. 남가태(南家台[낭가타이])

남가태(南家台), 남가(南家)는 금나라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몽골은 이 호칭을 그대로 쓰면서 복수 형태의 접미사인 "-s"를 더하여 "남가사(南家思)라고 불렀다[3]. 칭기스 칸 시기의 개국공신 키실릭[啓昔禮]의 손자이자 성종의 대신이었던 합랍합손(哈拉哈孫)의 아버지 이름은 낭가태(囊加台)였다. 낭가태는 "헌종을 따라 촉(蜀)을 정벌하였으며 전사하였다"[4]. 나이만(乃蠻) 부족의 낭가대(囊加歹)는 도원수부(都元帥府)에서 일하였으며 도원수 아주(阿朮)를 따라서 송나라의 양양을 포위하였었고 또 바얀[伯顔]과 아주를 따라 장강을 건너 동진하면서 누차 사신으로 파견되어 송과 담판하였다. 원나라 군대와 함께 임안(現 항저우)을 치고 성에 들어가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내었으며 절동 지역의 여러 주와 현들을 공략하고 나서는 몽골군의 부도만호(副都萬戶)로 승진하였고 그 후에는 강동도선위사(江東道宣慰使)로 임명되었다[5]. 바얀의 아들 중에도 낭가대(囊加歹)라고

---

[1] <史集> 제 2 권, p12.

[2] <원조비사> 제 208 절.

[3] [프랑스] 펠리오, <南家>, 馮承鈞 번역, <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2 편, 中華書局, 1995, p57;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p353, 周清澍이 작성한 "南家" 조항.

[4] <원사> 권 136 <哈拉哈孫傳>, p3291.

[5] <원사> 권 131 <囊加台傳>, p3184.

불린 자가 있었다[1].

6. 흠찰(欽察, Kipcak[킵차크])

흠찰(欽察)인들은 원래 이르티시강 유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흠찰(Kipcak)이란 단어는 중세 이란어에서 유래하였는 바, "kip"은 "붉은색" 혹은 "연한 색상"을 뜻하며, "cak"은 모든 초원 주민들에 대한 총칭이었다. 즉 "흠찰(킵차크)"이란 "피부색이 연한 초원 주민들"이란 뜻이다. 흠찰인들은 한때 "쿠반(庫曼[고만])인"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이름은 캅카스 지역에 위치한 쿠반강에서 유래되었다. 그들은 이란계와 돌궐계의 혼합 민족이었으며 7 세기 때 돌궐인에 쫓기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11 세기 중기에는 볼가강 유역과 우크라이나 초원 지대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였다[2]. <원조비사>에 의하면, 1205 년 칭기스 칸은 이르티시강 유역에서 메르키트[蔑兒乞] 부족의 잔여 세력을 격파하였으며 그들의 수령 톡타이 베키[脫黑脫阿別乞]는 살해되고 쿠두[忽都] 등 그의 세 아들은 강리(康里)를 거쳐 흠찰로 도망쳤다고 한다. 1216 년, 칭기스 칸은 수부타이(速不台)를 명하여 강린[康隣], 걸복찰올척[乞卜察兀惕](킵차크), 알라속척[斡羅速惕](러시아), 마찰랄척[馬札剌惕](헝가리), 아속척[阿速惕] 등 11 국에 대한 원정을 진행하게 한다[3]. 오코타이 시기에 바투가 몽골군을 인솔하여 유럽 도나우강 유역까지 진입한 침략전쟁을 <원조비사>에서는 "Qibcaqcin ayan"이라고 불렀다 [4]. 후일 바투는 사라이(撒萊)에 도읍을 정하고 킵차크 초원을 영지로 하여 킵차크(흠찰) 칸국을 건립하였다. 흠찰인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어 노예로 전락하였으며 흑마유주를 빚는다는 이유로 하라치(哈剌赤)라고 불렸다. 원세조 때에 그들의 수령 토토합(吐吐哈)이 전공을 세워 흠찰인 중에서 제왕에 예속되어 노예가 된 자를 방면하여 군대를 만들었고 흠찰위친군도지휘사사(欽察衛親軍都指揮使司)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후에 다시 거기에서 좌우 용익시위(龍翊侍衛) 등을 추가로 분설하였으며 이 모든 직위 위에 흠찰친군대도독부(欽察親軍大都督府)를 설치하였다[5]. 오고타이의 여섯째 아들 카단 오굴[合丹-斡忽勒]의 아들 중 한 명 역시 이름이 "흠찰"이었다[6].

7. 아속(阿速, As[아스])

아속(阿速)은 아사(阿思), 아숙(阿宿), 아속척(阿速惕)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아속인은 워낙 캅카스 북부에 살던 이란인으로서 그리스 정교회를 믿었다. 후에는 볼가강 입구로 이주하였으며 비잔틴, 곡아지(谷兒只, 지금의 그루지아), 알로사(斡魯思, 지금의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221 년 수부타이 등은 군대를 거느리고 캅카스에서 태화령(太華嶺)을

---

[1] <원사> 권 127 <伯顔傳>, p3116; 馮承鈞, <元代的幾個南家台>, <馮承鈞西北史地論集>2 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3, p185-201.

[2]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p14-15.

[3] <원조비사> 제 199 절, 제 262 절.

[4] 亦隣眞의 앞 문장, <亦隣眞蒙古學文集>,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693.

[5]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p372, 周清澍이 작성한 "欽察" 조항.

[6] <史集> 제 2 권, p21.

넘어 북상하여 아속 등 부족 연합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1239 년에는 뭉케가 아속의 멸겁사성(蔑怯思城)을 포위하였고 그해 3 월에는 이 부족을 정복하여 대량의 아속인들이 몽골에 투항하자 전투력이 강한 아속 군대를 조직하였다. 헌종 3 년(1253), 몽골제국은 사람을 파견하여 아속에서 호구조사를 진행하였고 7 년에는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주둔하게 하였다. 중원에 이주한 아속인들은 많은 경우 종군하였다. 지원 9 년(1272)에는 아속발도군을 조직하여 송나라로 진공하였다. 무종 때에 이르러서는 좌우 두 아속위(阿速衛)를 설치하였다 [1]. 뭉케 칸의 아들 중 하나는 이름이 아속태(阿速台[아수타이])였다 [2]. 라시드는 뭉케 칸의 "한 왕비의 이름이 쿠이테니[奎帖尼]였는데 일치긴[額勒只斤] 부족 출신이었다. (뭉케 칸은) 그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속대(阿速帶)라고 하였다. 아속대는 일찌기 아릭부케[亞里不哥]와 연합하여 쿠빌라이에 대항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였다 [3].

8. 아아혼(阿兒渾, Argun[아르군])

펠리오는 "아아혼[阿兒渾](Argun)은 부족 명칭 중의 하나로서 11 세기말 Kasigari 에서 이미 알려진 Argu 부족, 현대의 "Kara-Kirghiz"의 Argin 혹은 Argun 부족과 반드시 연관이 있을 것이다"[4]라고 하였다. 아아혼인들은 중앙아시아 제티슈(Zhetysu) 지역에서 츄이강(Chuy, 楚河) 유역에 이르는 지역 즉 키르키즈스탄 공화국 전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지역에서 생활하였던 돌궐 부족이었다 [5]. 훌라구(旭烈兀)의 손자 아로혼(阿魯渾[아르군], 1255-1291)은 일 칸국의 제 4 대 칸이었다.

9. 알라사(斡羅思, Oros[오로스])

알라사(斡羅思)는 다른 이름으로 알라사(斡羅斯), 올라사(兀羅思), 올로사(兀魯思), 아라사(阿羅斯)라고도 하며 복수 형태는 알라사척(斡羅斯惕)으로서, 현재의 볼가강 이서의 모스크바, 키예브 등 지역을 지칭한다. 13 세기의 러시아는 몇 개의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1223 년 몽골군은 볼가강에서 그들과 접전하여 첫 승리를 거두고 남부 지역에 진입하였다. 바투의 서정 이후로는 킵차크 칸국에 굴복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몽골과 중원 지역에서 노예가 되었다. 지순 원년(1330), "선충호위친군도만호부(宣忠扈衛親軍都萬戶府)를 설치하여 관위[秩]는 정삼품(正三品)으로 알라사(斡羅思) 군사를 총관하며 추밀원에 속한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12 월에는 알라사인 만 명을 집결시켜 만 무에 이르는 땅을 주어 둔전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이듬에 4 월에는 만호부를 선충호위친군도지휘사사(宣忠扈衛親軍都指揮使司)로 고쳤다.(<원사> 권 34, 35 문종기 3, 4; 권 100, 병지[兵志] 3 둔전)

카이두의 정실 두이진[迭連臣]이 낳은 아들 이름도 알로사(斡魯思)였다.

---

[1] <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 p353, 周清澍이 작성한 "阿速" 조항.

[2] <원사> 권 107, p2723

[3] <史集> 제 2 권, p234.

[4] [프랑스] 펠리오, <蒐麻林>, <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3 편, p58.

[5] 楊志久, <元代的阿兒渾人>, <元史三論>, 人民出版社, 1985, p229.

라시드는, “카이두는 대칸의 땅과 인접한 땅을 알로사에게 주었으며 동시에 그에게 상당히 많은 군대도 주었다”라고 하였다. (<사집> 제 2 권, 16 쪽)

10. 마찰아(馬札兒[마자르])

마찰아(馬札兒)는 마찰(馬札), 마차(馬茶), 마차(馬箚), 마찰랄(馬札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지금의 헝가리를 가리킨다. 1241 년 봄, 바투 형제와 수부타이 등이 이끄는 몽골군이 마자르를 진공하였으며, 얼마 안지나서 수도 페스트 성 부근까지 진입하여 출전한 마자르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12 월에는 바투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독납하(禿納河, 지금의 도나우강)을 건너자 (마자르는) 격란(格蘭, Gran) 성을 바쳤다.

메르키트 씨족 바얀의 동생 마찰아태(馬**紮**阿台[마자르타이], 1285-1347)는 무종과 인종 두 황제를 모셨으며, 태정(泰正) 4 년(1327)에는 섬서행대치서시어사(陝西行臺治書侍御史)에 임명되었다. 그 뒤로도 병부상서, 어사대부, 지추밀원사 등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후지원 3 년(1337)에 태보(太保)로서 추밀원에 부임하여 북쪽 변경을 지켰으며, 6 년에는 바얀의 뒤를 이어 우승상(右丞相)이 되었다. (<원사> 권 138, 3339 쪽, 마찰아태전)

11. 흔도(忻都, Hindu[힌두])

흔도(忻都)는 인도를 가리킨다. <원조비사> 제 261, 264 절에서는 흔도사(忻都思)라고 하였다(‘-s’는 복수를 나태내는 접미사). <지정 22 년추봉의 서녕황흔도신도비(至正二十二年追封的西寧王忻都神道碑)>의 주인공의 이름 역시 흔도(忻都)이다 [1].

칭기스 칸과 그의 후예들이 진행한 대규모 대외 정복전쟁 과정에서 한족, 여진, 서하, 고려, 흠찰, 아속, 알로사 등 여러 민족과 나라의 인구들은 대량으로 몽골 지역에 유입되었으며 그들 중의 대부분은 후일 몽골인에 동화되었다. 몽골제국 시기 몽골인들은 다른 민족이나 부족의 명칭을 가져다가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몽골인들과 이러한 민족들 사이의 왕래와 접촉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몽골제국 이후, 몽골 민족에 융합된 이러한 여러 민족과 나라의 명칭들은 점차적으로 몽골 부족과 성씨의 명칭으로 변모하여 갔다 [2]. 17 세기의 몽골 문헌 중에도 보면 숙량합(肅良合), 살아탑올륵(撒兒塔兀勒)과 같은 성씨와 하르친[哈剌沁], 아속(阿速)과 같은 부족명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사강 세첸(薩岡徹辰)이 쓴 <몽고원류(蒙古源流)> 중에는 여러 차례 “숙량합인”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1] 기미년(1433), 타이숭 타이지[太松台吉]가 타이숭 칸(漢문헌 중의 탈탈불화 칸[脫脫不花汗])으로 자처하고 그 아우 악바르지[阿黑巴兒只]를 지농[吉囊]으로 봉하여 오이라트[瓦剌] 4 부를 정벌하였다. 오이라트 쪽에서

[1] 亦隣眞의 앞 문장, <亦隣眞蒙古學文集>,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p690.

[2] 烏蘭, <關于蒙古人姓氏>, <蒙元史暨民族史論文集: 紀念翁獨健誕辰一百周年>,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102-103.

는 압둘라 세첸[阿卜都剌·扯臣]을 파견하여 악바르지와 그의 형 타이숭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켰다. (악바르지는) 그날 밤으로 숙량합인(Solongqas) 코토바가[忽都巴哈]와 코이차구드[火你赤兀] 씨족의 뭉케[猛可] 두 사람을 파견하여 압둘라 세첸과 함께 가서 두르벤(역자 주 : 몽골어로 '4'를 의미) 오이라트와 연합하게 하였다[1].

[2] 악바르지는 칸으로 즉위하였으나 그와 그의 아들 카르고촉[哈兒忽出黑]은 차례로 오이라트 인에게 살해당하였다. 오이라트의 에센 칸의 딸 세첵[薛扯克]은 카르고촉의 아내였는데 당시 이미 임신한지 7 개월이 되었다. 에센이 말하기를 "만약에 세첵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였으나 세첵이 아들을 낳자 에센의 조모인 사무르[撒木兒] 공주한테로 보냈다. 공주는 (아이에게) 바얀 뭉케[伯顔·猛可](몽골문 사서에 나오는 파독맹가[[把禿猛可], 다얀 칸[達延汗]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숙량합인 세겔두르[桑哈勒都兒]의 아내 카라친[哈喇黑臣] 태부인더러 키우게 하였다[2].

[3] 몰리카이[毛里孩] 왕은 타이숭 칸의 아들 몰론 타이지[莫蘭台吉]를 칸으로 세웠다. 숙량합인 코토바가는 몰론 칸에게 가서 말하였다. "몰리카이 왕과 사만다이[撒蠻地] 왕비가 공모하여 이미 병사를 이끌고 당신을 토벌하러 오고 있나이다." 그리고 몰리카이 왕에게 가서는, "몰론 칸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였나이다"라고 하여 양측을 이간시켜 싸우게 하였다. 그 결과 몰론 칸이 패하여 살해되었다. 진상이 밝혀지고 나자 몰리카이는 코토바가의 혀를 자르고 죽여 버렸다[3].

---

[1] 烏蘭, <'蒙古源流'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0, p273.

[2] 烏蘭, 위와 같음, p277.

[3] 烏蘭, 위와 같음, p280.